

“광주 오월정신, 세계 곳곳으로 이어져”

‘제21회 들불상’ 김아현 평화운동가

가자지구 구호... 최근 이스라엘에 억류
시상식 열린 5·18모지 찾아 “평화·연대”
들불상 심사위 “학살 저항 몸소 증명해”



김씨는 “광주 시민들이 팔레스타인의 아픔을 단순한 전쟁이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주 오월 정신이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광주 오월 정신이 지금도 국경과 바다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군에게 나포됐다 석방된 뒤 최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아현 평화운동가(28·활동명 해초·사친)가 광주에서 열린 들불상 시상식에서 5·18 정신과 연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23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역사의 문 앞에서 ‘2026 들불열사 합동추모식 및 제21회 들불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김아현

씨에게 들불상을 수여했다.
이날 현장에는 시민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주·인권·평화 정신 계승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 시작 전까지 비가 내렸지만 시상식이 시작되자 빗줄기가 잦아들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와 시상이 이어졌다.

메시지를 전파했다.
최근에는 국제 시민 연대 항해에 참여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억류됐다가 지난 22일 귀국했다.
제21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수상 결정문에서 “김아현씨는 국경과 바다를 넘나들며 인류의 양심을 깨워온 평화활동가”라며 “2023년 무동력 세일링 요트를 타고 107일간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생명의 항해’는 군사주의의 긴장을 녹이고 생명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파한 독보적인 실천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자지구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가자지구로 가는 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학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임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라며 “광주의 오월 정신이 어떻게 세계적 평화 연대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한편 들불상은 1970년대 광주 서구 광천동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다 세상을 떠난 7명의 들불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윤찬용기자



5·18기념재단 ‘5·18문학상’ 시상식

5·18기념재단은 25일 “지난 23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2026 5·18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전국 문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26 오월문학제’와 연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본상 수상자인 백무산 시인은 수상 소감을

통해 “광주 5·18은 제 삶과 문학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며 “민주주의와 민중문학의 역사 속에서 5·18 정신은 지금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5·18문학상은 2005년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신인상으로 시작됐으며 2016년부터는 기성작가를 대상으로 한 본상이 추가로 제정돼 함께 시상되고 있다.
/이연상기자

목포교도소 ‘수용자 희망음악회’ 성황

목포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희망음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연예인협회 목포지회가 주최하고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 한국연예인협회 전남연합회, 목포예총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다채로운 가요 무대와 밴드 공연, 각설이 인생극장 등이 풍성하게 펼쳐져 수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수용자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문화예술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되새기며 건전한 사회 복귀 의지를 굳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귀남 목포교도소장은 “문화예술 활동이 수



용자들의 정서 안정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농협 곡성군지부는 “최근 곡성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대표통장 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과 대표통장 범죄로부터 고령층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대응요령이 상세히 담긴 ‘피해 예방 10계명’ 안내장이 배부됐다.
농협 곡성군지부는 일선 영업점 내 예방 안내문 게시와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매진하며 선제적인 피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대웅 지부장은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



약한 어르신들이 현명한 대처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여수산단발전협, 제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찰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는 “최근 제주도를 찾아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시찰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청정에너지 전환 해법 모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이 ‘청정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됨에 따라 제주에서 미래 에너지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시찰단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림대 상풍력단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과 전력망의 효율적 운영 성공 사례를 살폈다.
특히 국내 최대급 해상풍력 단지의 건설·운영 체계는 물론, 지역 주민 참여형 상생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향후 여수 앞바다 해상풍력 추진 시 필수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신 사무국장은 “이번 시찰은 기술과 지역 일자리 등 탄소중립 산업의 성공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를 토대로 여수형 신재생에너지와 산업 탄소중립 정책 제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탄소중립 산업정책포럼은 2023년 출범해 현재 시즌4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전남도 기반산업과, 여수시, GS칼텍스, ㈜한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광주소방 류락현 조사관 ‘화재조사 우수사례’ 수상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대구EXCO에서 열린 ‘2026년 전국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류락현(사진 가운데) 화재조사관이 과학적 조사 사례로 장려상(한국소방안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최해 과학적인 화재감식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간 화재조사 역량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된 주요 화재조사 성공 사례들을 발표하며 열린 경연을 펼쳤다.
광주소방본부 대표로 참여한 류 조사관은 지

난 3월 광산구에서 발생한 태양광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화재조사’를 발표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선제적으로 ‘입체(3D) 엑스레이(X-ray) 및 전류 변성기(CT) 촬영’을 진행한 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최종 분해 감정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 인버터 내 절연막이 노후화(절연열화)해 단락(합선)이 일어나 불이 났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화재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게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담양교육지원청, 獨 브레멘 연수단 교류

담양교육지원청은 “최근 독일 브레멘 교원 연수단을 초청해 관내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교육교류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외 교육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단은 학교 수업 참관 등을 통해 담양 교육의 운영 방향과 현장을 살폈다.
한제초등학교와 창평중학교를 찾은 연수단은 유치원 생태교육과 학생 참여형 AI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참관했다.
특히 한제초 5학년 사회와 수업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5·18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의 활동을 조명하며 양국 교원과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깊이 있게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담양공고와 솔가람고를 잇따라 방문해 직업·진로 중심의 특화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김진홍 담양교육장은 “5·18을 주제로 양국이 함께한 수업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감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선 학교의 국제 교육교류를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 북부경찰 ‘학생 안전 설명회’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범죄예방단팀이 광주시교육청과 연계해 학원연합회 소속 원장 1천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피습 사망사고와 관련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범죄예방단팀은 학원이 주변 CCTV 사각지대와 범죄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안전한 복귀’ 조성을 위한 체감안전도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특히 학원가 주변에서 장시간徘徊하거나 위험 물건을 소지한 사람 등 이상행동 발견 시 즉시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현장 대응 요령도 전달했다.
양백승 북부경찰서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기관·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찬용기자



제14기 전남귀어학교 과정 수료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2일 강진 소재 전남귀어학교에서 제14기 귀어 정착과정 수료식을 개최, 19명의 예비 어업인을 배출했다.
수료식에는 19명의 교육 수료생과 현장 실습을 지도한 어업인 등이 참석해 12주간의 교육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귀어 계획에 대해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전남귀어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과정으로 시범 운영됨에 따라 교육 기간이 기존 8주에서 12주로 확대됐다. 어촌과 소통하고 어업 현장을 익히는 어촌 체류형 현장 실습을 한층 강화해 이뤄졌다.
/양서원기자